

# 경제 회생은 '과학기술 인식'으로

“과학 연구사업 및 인재 양성 주력” 천명... 상당한 수준의 IT인력 보유



북한은 열악한 경제를 과학기술로 회생시켜 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02년 1월 23일자 노동신문 사설을 보면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강성대국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자”는 제하에 과학 연구 사업과 대대적인 인

재 양성에 주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처럼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경제와 과학기술의 결합을 꾀하고 있으며 과학원 산하 프로그래밍교과와 집적회로 기능공학교를 통합하여 정보기술 학교를 신설하는 등 인재양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폐쇄된 국가로서 인터넷도 특수층만 사용할 수 있고 외국 과학기술자들의 북한 방문도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첨단기술 발전에 필요한 정보의 획득이라던가, 연구결과의 상품화 등이 대단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북한의 과학자들은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구소련과 동유럽이 붕괴되기 이전에는 북한의 과학기술자가 이들 나라에 많이 유학을 갔으며 중국에도 많은 학생이 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동구권이 붕괴되고 중국에 천안문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들 유학생들은 철수되었고 그 후 「고난의 행군」등으로 연수생 수가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다가 2000년 6월의 남북정

상회담 개최와 경제성장이 「플러스」로 되면서 대서방권 경제분야 해외연수가 강화되었다. 그리하여 미국, 영국, 호주 등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에 연수생을 보냈다. 연수 내용에 있어서는 국제경제학, 보험, 금융, 국제거래, 회계, 통계 등 시장 경제 및 무역 실무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에너지, 농축산업, 의료, IT 등 산업부문의 선진 기술 연수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수생을 파견했다. 2001년도에 있었던 주요 해외 경제 연수 사례를 들어보면 경제 관료들이 IBRD시찰(2.27~3.4)을 했고 미국 포틀랜드 주립대(PSU)에서 5월 22일부터 1주일간 하이테크 기술 관련 시장경제 연수를 했으며 ‘체네바 다자협상 실습 연구소’에 가서 국제통산분야 연수(5.14~6.23)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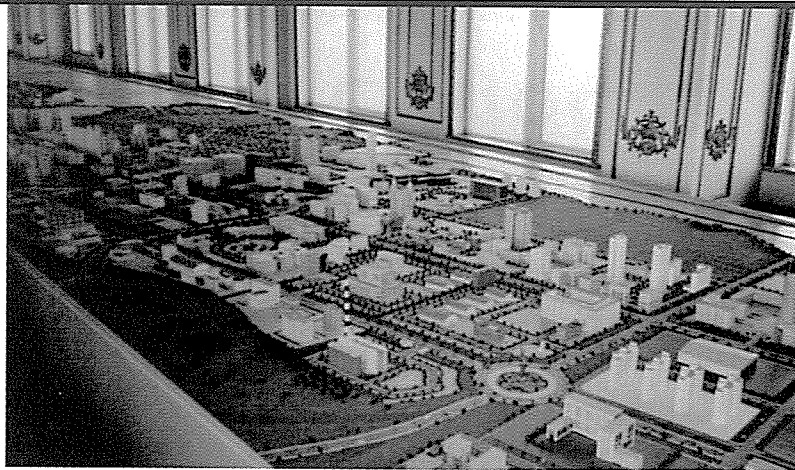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IT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후 북한은 IT관련 연수를 부쩍 늘렸으며 중국 등 외국에 IT 과학기술자를 파견하여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02년 3월에는 북한의 무역상이 벨기에,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 등 4개국을 순방하고 돌아와 유럽연합(EU)에 5백명 규모의 연수생을 파견했다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그 후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북경에 있는 북한 전문가가 말했다. 북한에서의 IT인력은 주로 김일성대, 김책공대 등 종합대학과 평양시 은정구역에 있는 리과대학, 그리고 평양컴퓨터기술대학에서 양성하고 있다. 외국에 설치된 북한의 IT관련 현지법인은 싱가포르, 일본 등지에도 있으나 많은 것은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중국에 있다. 여기에서 대표적인

것 몇 개에 대해 그곳에 나와있는 북한 IT전문가의 활동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중국심양에서 실리은행(Silibank)을 운영하고 있는 북한의 과학자들은 IT분야 전문가로서 그 중 한 사람은 1993년에 열린 제34차 국제 수학 올림픽 경기에서 동메달을 획득하였다. 실리뱅크의 주업무는 해외에 거주하는 고객과 북한에 있는 고객 사이의 전자우편(E-mail) 교환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인터넷이 일반적으로 수용되지 않는 북한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방법이 매우 편리한 것이라 하겠다. 실리뱅크는 그 외에도 평양에서 개최되는 과학기술분야 혹은 산업분야 전시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에서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해서 보낸다던가 전문서적 혹은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보내주고 있다. 전문서적은 아마존닷컴을 통해 미국서 구입하는 것도 있지만 한국서 구매해서 보내는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구입한 서적은 주로 웹메일, 신용카드를 이용한 전자 상거래, 해킹방지 등 보안, 오라클 SQL등 데이터베이스, 마케팅게임등 응용에 관한 것과 윈도우용 TCP/IP, 윈도우 2000 시스템 프로그래밍등 기초적인 것들이 있다. 실리뱅크의 모체가 되는 평양의 STS 기술 봉사소는 매우 유능한 젊은 연구원들이 중심이 되어 세워진 것으로 그들의 설립목표를 보면 첫째로 북한 소프트웨어계에서 표본이 되는 집단, 둘째로 세계 일류급 기업, 성공하는 기업의 모델, 셋째로 성원들이 모든 사업에서 진정한 주인이 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들은 중국 심양에 있는 실리은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 단둥에도 북한의 IT전문가들이 나와서 활동하고 있다. 남한의 하나비즈닷컴의 자본 및 경영능력과 북한의 평양정보센터의 기술력이 결합하여 2001년 8월에 세워진 하나프로그램센터에는 평양정보센터에서 파견되어 나온 유능한 연구원 수십명이 프로그램 개발 용역 사업, 연구개발 사업 수주 및 독자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다산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라우터, 스위치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의뢰를 받아 해외



과학기술동향 500호 기념 CD-ROM 타이틀을 제작하고 유니코드 다국어 입력환경(Unicode CJK-IME)를 개발했다. 또한 일본 쇼에이사에서 의뢰한 견적시스템도 주문 개발했으며 독자 프로그램으로 Trie기법에 기초한 자료검색엔진 개발, 웹페이지 제작 서비스 관련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하나프로그램센터는 교육원도 운영하고 있어 북한의 IT 관련기관인 김일성 종합대, 김책공대, 리과대, 평양컴퓨터 기술대 및 평양정보센터 연구원을 데려다 3~4개월씩 교육을 시키고 있다. 교육과정은 네트워크 전문가 과정, 전자 상거래 전문가 과정, 컴퓨터 그래픽 및 가상현실 과정, 웹프로그래밍 전문과정 등 다양하다. 자세한 내용은 하나프로그램센터의 홈페이지([www.hanasoft.com.cn](http://www.hanasoft.com.cn))에서 얻을 수 있다.

최근에는 중국 심양에 신성전자상무유한공사가 설립되어 이곳에도 북한의 IT전문가 50명이 나와 활동하고 있다. 이 공사의 활동 방향은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IT 연구팀이나 회사들과 공동연구, 공동개발, 주문개발을 하여 시장성을 높여 이윤을 분배하는 것과 이미 개발된 IT의 기술 양도판매 또는 기술투자 협동생산 판매를 하며 이윤을 분배하려는 것이다. 이 회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www.xinsei2002jp.net](http://www.xinsei2002jp.net)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북한의 IT 기술인력의 수준은 상당하여 자본, 하드웨어 인프라 등이 좋아지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 할 수 있다고 본다. 남북 IT전문가의 왕래가 매우 힘든 현재의 상황에서는 제 3국을 통한 협력도 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박찬모 포항공대 총장대행

신의주 특별행정 IT공단, 화력발전소 모형도